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20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일 예배 2026년 5월 31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놀라운 그 이름 / 찬송가 619(신)

*성서 교독 / 성서 교독문 36번(시편 90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 찬송가 412(신) 469(구)

기도 / 백래석 집사

성경 봉독 / 마태복음 13장 11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능력 / 박화신 목사

찬송 /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찬송가 585(신) 384(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빈 들에 마른 풀같이 1, 2절 / 찬송가 183(신) 172(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사도행전의 처음과 마지막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힘과 세상적인 성공만을 쫓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철저히 감추어진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감각은 무뎠던 채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2. 이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정교한 논리나 말재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짓던 죄를 깨닫게 하고, 내 힘으로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을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게 하며, 메말랐던 영혼을 새롭게 살려냅니다.
3. 이제 우리는 말만 앞서는 무기력한 종교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기어코 용서하고,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선택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 설교 요약

말씀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 나라

1.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책임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는 사도행전이 단순히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이나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임을 보여 줍니다.

2. 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지혜나 조직력, 열심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 있던 이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3. 또한 사도행전은 중요한 전환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박해가 있어도,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갑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4.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성공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단지 조직을 유지하거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함으로써,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사도행전 성경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이번 금요일 21-23장 공부합니다).
5. 오늘 예배와 친교 후에 각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을 깊이를 나누는 귀한 모임 되기를 축복합니다.
6. 김현경 자매님 개인적 사정으로 오늘 사임합니다. 귀한 사역과 봉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기원합니다.
7. 다음 주 6월 첫째 주일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5월 예배위원

안 내	한규철	조은영
기 도	최명희(3) 박주혜(10) 최상천(17)	조은영(24) 박래석(31)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20



01 지적인 교만

- 지식이 많고, 자신을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태도로 인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성과 판단을 과신해 복음을 거부합니다.



02 편견과 의도적인 거부

- 사람들이 미리 마음을 닫고, 보지 않으려 하고 듣지 않으려 합니다.
- “듣기도 전에 이미 기독교를 배척하는” 태도.



03 마음의 완악함 (기름이 낀 마음)

- 세상적인 욕망,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물질과 오락으로 가득 찬 삶.
- 마음에 “기름이 너무 끼여” 영적인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이사야 6:9-10 인용).
- 현대 사회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둔감해져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들으라 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보라 하여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눈을 감고도 돌아보지 아니하여 내가 고쳐 주지 아니하면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쳐 줄까 하노라”
이사야 6:9-10

마음을 열고,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